

다니엘서 - 제53번

드러난 예언적 환상: 다니엘의 경험을 통해 마지막 때를 이해하기

Jeff Pippenger

2024-01-17

모든 선지자들은 자신들이 살던 시대보다 말세에 대해 더 많이 말한다.

옛 선지자들은 각자 자기 시대보다 오히려 우리 시대를 위하여 말하였으므로, 그들의 예언은 우리에게 적용된다. "이제 이 모든 일은 그들에게 본보기로 일어났고, 또한 세상 끝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므로 그것들이 우리를 훈계하기 위하여 기록되었다." 고린도전서 10:11. "그들이 섬긴 것은 자기들을 위하여가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였으니, 곧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으로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자들을 통해 이제 너희에게 전해진 그 것들이라. 이 일들은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간절히 원한다." 베드로전서 1:12

"성경은 이 마지막 세대를 위하여 그 보화들을 축적하고 함께 묶어 두었다. 구약 역사에 나타난 모든 위대한 사건들과 엄숙한 일들이 이 마지막 날들에 교회 안에서 반복되어 왔으며, 또한 반복되고 있다." Selected Messages, book 3, 338, 339.

다니엘은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한다. 그 백성은 마지막 때에 예언의 말씀을 통해 자신들이 흠어졌음을 발견한다. 그 사실을 깨달을 때, 그들은 레위기 26장의 기도를 드려야 하며, 또한 은혜의 시간이 끝나기 직전에 봉인이 풀리는 마지막 예언의 비밀을 깨닫게 해 달라고 기도해야 하는데, 이는 다니엘서 2장에 나오는 다니엘의 기도에서 나타난 바와 같다. 그들이 다니엘의 경험에 들어가게 되면, 가브리엘 천사가 그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기 위해 다가와 만지고, 깨우치며, 말씀할 것이다. 예언의 비밀이 봉인 해제될 때 "지식의 증가"를 "깨닫는" 자들이 곧 지혜로운 자들이다.

그가 내게 알려 주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네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나왔느니라. 네가 간구하기 시작할 때에 명령이 나갔고, 내가 그것을 네게 알리려고 왔느니라. 너는 크게 사랑을 받은 자이니, 그러므로 이 일을 깨닫고 그 환상을 깊이 생각하라. 다니엘 9:22, 23.

다니엘에게 숙고하라고 지시된 환상은 '모습'에 관한 '마레' 환상이다. 가브리엘은 8장에서 다니엘에게 '마레' 환상을 이해시키라는 임무를 받았지만, 그가 맡은 일을 끝내지 못했다. 9장에서 그는 그 해석을 마무리하기 위해 돌아왔다. 9장에서 다니엘은 더 이상 바빌론 왕국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메대-바사 제국의 역사 속에 있다.

가브리엘이 다니엘에게 "그 일을 깨달으라" 그리고 "그 환상을 숙고하라"고 지시할 때, 그는 다니엘이 실행하기를 원하는 정신적 구별의 과정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깨달으라"와 "숙고하라"로 번역된 말은 같은 히브리어 단어다. 그 단어는 "biyn"이며, 마음속에서 구별한다는 뜻이다. "일"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 "dabar"이며, "말"을 뜻한다. 그러므로 가브리엘은 다니엘과 그가 마지막 날들에 대표하는 자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올바르게 분별하라고 알리고 있는 것이다.

네 자신을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로 보이기 위해 힘쓰되, 진리의 말씀을 올바르게 다루는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 되라. 디모데후서 2:15.

"matter"라는 단어는 다니엘서 10장 1절에서도 사용되며, 그곳에서는 세 번이나 "thing"으로 번역되어 있다.

바사 왕 고레스 제삼년에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한 일이 계시되었으니, 그 일은 참되나 정한 기한은 오래인즉, 다니엘이 그 일을 깨닫고 그 이상을 깨달으니라. 다니엘 10:1

이 구절에서 "vision"이라는 단어는 겉모습에 관한 "mareh" 환상을 가리키며, 다니엘은 그 일(사안)과 환상("mareh") 둘 다를 이해하고 있었다. 9장 23절에서 가브리엘은 다니엘에게 그 사안과 환상을 바르게 구분하라고 지시했으며, 10장 1절에서는 다니엘이 사안(일)과 환상("mareh") 둘 다를 이해하고 있다. 가브리엘은 9장에서 사안과 환상 사이의 구별(바르게 구분)을 인식하라고 다니엘에게 알리고 있다. 그 환상은 "mareh" 환상이며, "사안" 또는 "일"은 "chazon" 환상이다.

제8장에서는 두 환상이 모두 제시되며, 차이가 있음을 지적한다. 다니엘은 "chazon" 환상을 이해하길 원했지만, 가브리엘은 다니엘이 "mareh" 환상을 이해하도록 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가브리엘이 다니엘에게 "일"과 "환상"을 이해시키는 일을 시작하면서, 그것들이 서로 다른 두 환상임을 알아두라고 일러준다.

그가 내게 깨닫게 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이제 내가 네게 지혜와 깨달음을 주려고 나왔노라. 네 간구가 시작될 때에 명령이 나왔고, 내가 이것을 네게 알려 주려고 왔느니라. 너는 크게 사랑받는 자이니, 그러므로 그 일을 깨닫고 그 환상을 깊이 생각하라. 네 백성과 네 거룩한 성을 위하여 칠십 이레가 정해졌나니, 범법을 끝내고 죄를 그치게 하며, 불법을 속죄하고 영원한 의를 들어오게 하며, 환상과 예언을 봉함하고 지극히 거룩한 이에게 기름을 부으려 함이라. 그러므로 알고 깨달으라. 예루살렘을 다시 세우고 건축하라는 명령이 나가는 때부터 메시아 곧 통치자에게 이르기까지 일곱 이레와 예수두 이레가 있을 것이며, 그 동안 거리는 다시 세워지고 성벽도 세워지리니, 곤란한 때에도 그러하리라. 그리고 예수두 이레 후에 메시아가 끊어질 것이나 자기를 위함이 아니며, 장차 올 통치자의 백성이 그 성읍과 성소를 멸할 것이요, 그 끝은 홍수같이 임할 것이며, 전쟁의 끝까지 황폐가 작정되었느니라. 그는 한 이레 동안 많은 사람과 언약을 굳게 할 것이요, 그 이레의 중간에 제사와 예물을 그치게 하며, 가증한 것들이 퍼짐으로 황폐하게 하리니, 마침내 끝날 때까지 정해진 것이 황폐한 자 위에 쏟아지리라. 다니엘 9:22-27.

가브리엘은 자신이 다니엘에게 제공한 해석에는 'chazon' 환상과 'mareh' 환상의 요소가 모두 포함될 것임을 다니엘이 깨닫기를 원했다. 그 해석은 두 환상 모두를 다루는 것이었으며, 성소와 군대가 짓밟히는 것을 다루는 환상과 1844년 10월 22일 지성소에서 그리스도의 나타남으로 이어지는 환상을 올바르게 구분하는 것은 다니엘의 책임이었다.

가브리엘은 기원전 457년 아르타크세르크세스의 칙령으로부터, 저녁과 아침의 환상의 이천삼백 년에서 '잘려 나간' 사백구십 년이 있을 것이며, 그것은 특히 유대인들을 위한 것이라고 밝힌다. 바로 앞에서 인용한 구절들에서는 'determined'라는 단어가 세 번

나오지만, 그 구절들에서 'determined'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 서로 다른 두 가지다. 처음으로 'determined'가 언급되는 것은 24절이며, 그 히브리어 단어는 'chathak'으로 '잘라내다'를 뜻한다.

이는 이스라엘에게 아르타크세르크세스의 세 번째 칙령으로 시작해 서기 34년 스테반이 돌에 맞아 죽은 사건으로 끝나는 유예 기간이 주어졌음을 밝힌다. 사백구십 년은 "잘려 나간" 기간이었으며, 이천삼백 년이라는 더 긴 예언 안에 포함된 더 짧은 예언적 기간을 나타냈다. "사백구십"이라는 수는 예수께서 증언하신 바와 같이 유예 기간을 상징한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께 나아와 아뢰되, 주여, 내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일곱 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곱 번까지가 아니라 일흔 번씩 일곱 번까지니라. 마태복음 18:22.

용서에는 끝이 있으며, 그 끝은 '사백구십'이라는 숫자로 나타난다. '사백구십' 년은 유대인들이 구출된 때부터 스테반을 돌로 쳐 죽임으로써 그들의 유예 기간의 잔을 가득 채웠던 때까지의 유예 기간을 가리킨다. '사백구십' 년은 또한 레위기 26장의 '일곱 번'의 저주와도 연결되어 있다. 성경에서 땅이 자기의 안식일들을 누린다고 언급하는 곳은 두 곳뿐이다. 첫째는 레위기 26장에 있다.

너희가 이 모든 일에도 내 말에 귀 기울이지 아니하고 내게 거슬러 행하면, 내가 또한 분노로 너희에게 거슬러 행할 것이며, 나, 곧 내가 너희의 죄 때문에 너희를 일곱 배나 징계하리라. 너희가 너희 아들들의 살을 먹겠고, 너희 딸들의 살도 먹으리라. 내가 너희의 산당들을 헐고, 너희의 우상들을 찍어 버리며, 너희의 시체를 너희 우상들의 시체 위에 던질 것이니, 내 영혼이 너희를 가증히 여기리라. 내가 너희의 성읍들을 황폐하게 하고, 너희의 성소들을 폐허로 만들며, 너희 향기로운 냄새를 내가 맡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 땅을 황무하게 하리니, 그 안에 거주하는 너희 원수들이 그것을 보고 놀랄 것이다. 내가 너희를 민족들 가운데로 흠고, 칼을 빼어 너희 뒤를 따르게 하리라; 그리하면 너희의 땅은 황무하게 되고 너희의 성읍들은 폐허가 되리라. 그때 그 땅이 자기의 안식일들을 누리리니, 그것이 황폐한 동안과 너희가 너희 원수들의 땅에 있는 동안에도 그 땅은 쉬며 그 안식일들을 누리리라. 그것이 황폐해 있는 동안에 쉬리니, 이는 너희가 그 위에 거주할 때 너희의 안식일들에 쉬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레위기 26:27-35.

스물여섯째 장에서 네 번 언급되는 "일곱 때"의 징벌은 하나님의 백성이 흠어질 때 그 땅이 "자기의 안식일들을 누릴 것"임을 밝힌다. 다니엘과 세 의인은 모세의 저주가 성취되어 원수들의 땅으로 흠어졌으며, 그 70년간의 흠어짐은 2,520년의 흠어짐을 상징적으로 보여 주는 표상적 교훈이었다. 그것은 이세벨의 박해 동안 있었던 엘리야의 3년 반 가뭄과 유사한 예언적 표상 교훈이었다. 그 3년 반은 예언적 3년 반을 대표했는데, 이는 538년부터 1798년까지의 교황권 1,260년에 해당했다. 70년은 "일곱 때"의 상징이었고, 마찬가지로 3년 반은 1,260년의 광야 기간의 상징이었다. 예레미야가 명시한 다니엘의 포로 생활 70년은 "사백구십" 년을 대표했다.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인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자들을 그들에게 보내시되, 부지런히 보내셨으니, 이는 그가 자기 백성과 그의 거하시는 처소를 긍휼히 여기셨음이라.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사자들을 조롱하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들을 확대하여, 여호와와 그의 백성에게 일어나 더는 고칠 길이 없게 될 때까지 이르렀더라. 그러므로 그가 갈대아 사람의 왕을 그들에게 오게 하시니, 그가 그들의 성소의 집에서 칼로 그들의 청년들을 죽였고, 젊은 남자나 처녀, 노인이나 늙어 허리가 굽은 자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 그들을 모두 그의 손에 넘기셨더라. 하나님의 집의 모든 그릇, 크고 작은 것들과 여호와와 그의 집의 보물과 왕과 그의 고관들의 보물을 모두 바벨론으로 가져갔더라. 그들이 하나님의 집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성벽을 헐며 그 모든 궁궐들을 불로 사르고 그 안의 모든 아름다운 기구들을 멸하였더라. 칼에서 피한 자들을 그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갔고, 그들은 바사 왕국이 다스릴 때까지 그와 그의 아들들의 종이 되었더라. 이는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 그 땅이 그 안식들을 누릴 때까지라. 그 땅이 황무한 동안에는 안식을 지켜, 칠십 년이 차기까지 하였더라. 바사 왕 고레스의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바사 왕 고레스의 심령을 감동시키시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로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가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국을 내게 주시고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에서 그를 위하여 집을 건축하라 내게 명하셨느니라. 너희 중 그의 모든 백성에 속한 자는 누구든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하시기를 원하노니, 그는 올라갈지어다. 역대하 36:15-23.

성경에서 '땅이 자기의 안식년들을 누렸다'는 언급은 오직 두 군데뿐인데, 그것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흠어짐과 칠십 년 포로 생활과 관련되어 있으며, 그 칠십 년은 땅이 자기의 안식년들을 누리도록 허용된 기간을 나타낸 것이다. 그 기간은 유대인들이 땅에 쉬도록 허락하지 않았던 안식년들의 수와 같았다. 땅이 칠십 년 동안 쉬지 못한 것은, 땅으로 하여금 쉬게 하라는 계명에 대한 반역이 누적된 총연수를 나타낸 것이었다. 간단한 계산으로 보면, '사백구십' 년의 반역 기간 동안 땅이 쉬지 못한 해가 모두 칠십 년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사백구십 년이 유대인들을 위한 유예 기간으로서 이천삼백 년에서 분리되었고, 그 '사백구십' 년은 레위기 26장의 '일곱 때'로 인한 흠어짐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유린에 관한 "chazon" 환상과 이천삼백 년의 끝에 있을 출현에 관한 "mareh" 환상은 서로 구별되지만,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 다니엘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은 두 환상을 올바르게 분별하는 동시에 서로의 연관성을 인식해야 한다. 유대인들이 돌아와 예루살렘을 재건하도록 허용한 세 가지 칙령으로 이어진 칠십 년의 포로 생활은, 땅을 쉬게 하라는 언약에 대한 "사백구십" 년에 걸친 유대인의 반역을 상징했다.

세 번째 칙령이 그들이 돌아와 재건할 기회를 밝혀 주었을 때, 그들에게는 '사백구십' 년의 시험 기간이 주어졌는데, 이는 그들의 불순종이 예루살렘의 파괴와 그들의 흠어짐을 초래했던 것과 같은 기간으로 그들이 시험을 받았기 때문이다. 두 번째 '사백구십 년'의 끝에 이르러, 그들의 불순종은 다시 한 번 예루살렘의 파괴와 그들이 이방인들 가운데로 흠어지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었다.

칠십 년 포로생활의 흠어짐에 앞서 '사백구십' 년의 반역이 있었고, 그 칠십 년 포로생활 뒤에는 또 다른 '사백구십 년'의 추가적인 반역이 뒤따랐다.

첫 번째 “사백구십” 년 기간은 땅이 안식한 칠십 년을 가져왔고, 예루살렘의 파괴로 결말을 맺었다. 이천삼백 년에서 떼어낸 “사백구십” 년의 끝에 예루살렘은 다시 한 번 파괴되었는데, 이는 예수께서 항상 어떤 것의 끝을 그 시작을 통해 보여 주시기 때문이다.

문자적 바벨론에서의 문자적 이스라엘의 칠십 년 포로 생활은 ‘일곱 때’의 흠어짐을 상징했으며, 화이트 자매는 문자적 바벨론에서의 문자적 이스라엘의 칠십 년 포로 생활이 영적 바벨론에서의 영적 이스라엘의 1,260년 포로 생활의 예표였다고 밝힌다.

“지상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는 이 오랜 기간의 가차 없는 박해 동안, 유배 기간에 바빌론에서 포로로 잡혀 있었던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랬던 것과 마찬가지로, 실로 포로 상태에 있었다.” Prophets and Kings, 714.

538년부터 1798년까지의 1260년은 “일곱 때”의 예표였다. 칠십 년이 끝날 때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재건하기 위해 돌아왔다. 세 칙령이 내려지는 동안 그들의 귀환은 “mareh” 환상의 2300년 기간이 기원전 457년에 시작되었음을 알렸으며, 이는 1844년 10월 22일 그리스도께서 지성소에 나타나신 데로 이어졌다. 이 세 칙령은 예언적 기간의 시작을 알렸고, 비록 그들이 고레스의 첫 칙령으로 귀환과 재건을 시작했지만 그 예언적 기간이 시작되기 위해서는 세 칙령 모두가 필요했다.

“에스라 7장에는 그 조서가 기록되어 있다. 12-26절. 그것은 가장 완전한 형태로는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에 의해 기원전 457년에 발표되었다. 그러나 에스라 6:14에서는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전이 ‘고레스와 다리오와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의 명령[난외주, ‘조서’]에 따라’ 건축되었다고 말한다. 이 세 왕은 그 조서를 시작하고, 재확인하며, 완성함으로써, 2300년의 시작을 표시하기 위하여 예언이 요구하는 완전한 상태에 이르게 하였다. 조서가 완성된 때인 기원전 457년을 그 명령의 연대로 취할 때, 칠십 이레에 관한 예언의 모든 세부 사항이 성취된 것으로 드러났다.” 『각 시대의 대쟁투』, 326.

1798년부터 1844년에 이르기까지 요한계시록의 세 천사가 예언의 역사에 등장했으며, 세 칙령이 이천삼백 년 예언의 시작을 알렸던 것처럼 그 세 천사는 그 예언의 끝을 알렸다. 예언의 기간은 셋째 칙령의 도래로 시작되었듯 셋째 천사의 도래로 끝났으니, 이는 예수님께서 언제나 어떤 일의 끝을 그 시작과 연결하여 규정하시는 분이기 때문이다.

유대인들은 첫 번째 칙령 아래에서 귀환을 시작했으며, 두 번째 칙령의 시기에 성전을 완공했다. 셋째 천사는 1844년 10월 22일에 도래했으며, 그 날짜 이전에 밀러주의자들은 영적 바벨론에서 나와 재건하려 했던 영적 성전을 완성했다. 그것은 완성되어야 했는데, 1844년 10월 22일에 언약의 사자가 갑자기 자신의 성전에 오기로 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그 성전은 1844년 10월 22일에 언약을 맺은 밀러주의자들이었고, 베드로는 그들을 성전이라고 말한다.

너희도 살아 있는 돌들처럼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 거룩한 제사장 무리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신령한 제사를 드리려 함이라.
베드로전서 2:5

밀러파 성전은 1798년부터 1844년까지 세워졌는데, 이는 46년이며, 예언적으로는 사흘이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성전을 다시 세우는 데 사흘이 걸린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워지자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 성전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작은 줄로 채찍을 엮어 그들을, 곧 양과 소까지 모두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환전상들의 돈을 쏟아 버리시며 상을 엮으셨다. 그리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이것들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제자들은 "주의 집을 위한 열심이 나를 삼켜 버렸다"고 기록된 것을 기억하였다.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그에게 말했다. "네가 이런 일을 하니, 우리에게 무슨 표적을 보여 주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셨다. "이 성전을 헐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겠다." 유대인들이 말했다. "이 성전을 짓는 데 사십육 년이 걸렸는데, 네가 사흘 만에 그것을 다시 세우겠다는 말이냐?" 그러나 그가 말씀하신 성전은 자기 몸을 가리키신 것이었다. 요한복음 2:13-21.

화이트 여사는, 말라기서에 나타난 언약의 사자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는 예언이, 방금 요한복음의 구절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성전을 정결케 하셨을 때 성취되었다고 밝힌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세상의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신 일은, 죄의 더러움—영혼을 부패시키는 세속적 욕망과 이기적 정욕, 악한 습관—으로부터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려는 그분의 사명을 선포하신 것이었다.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 길을 준비할 것이다. 너희가 찾는 주, 곧 너희가 기뻐하는 언약의 사자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이르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노라, 보라, 그가 오리라. 그러나 그의 임하시는 날을 누가 견디며, 그가 나타나실 때 누가 설 수 있겠느냐? 그는 정련하는 자의 불과 같고, 빨래하는 자의 잿물과 같으니라. 그가 은을 연단하고 정결케 하는 자로 앉아 레위의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그들을 금과 은 같이 정련하여 그들이 의로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게 하리라. 말라기 3:1-3." 시대의 소망, 161쪽.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성전은 건축하는 데 46년이 걸렸고, 예수님은 무너진 성전을 사흘 안에 다시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다. 1798년부터 1844년까지는 46년이며, 이는 2,300년 예언을 시작하게 했던 세 가지 칙령으로 예표되어 있었던 요한계시록 14장의 세 천사(날들)의 도래를 가리킨다. 이 46년은 그리스도께서 밀러파의 성전을 일으켜 세우신 기간이며, 그 이전에는 영적 성소와 영적 이스라엘이 영적 바빌론에 의해 짓밟혀 왔다.

그리스도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던 때 유월절에 성전을 정결하게 하셨을 때, 이는 말라기에 기록된 대로 언약의 사자가 갑자기 자기 성전에 오리라는 예언의 성취였다. 1844년 10월 22일, 그리스도께서 갑자기 그분의 성전에 오셨고, 무너진 자신의 성전을 다시 세우는 데 그분께서는 사십육 년이 걸렸다.

"Daniel 8:14에 나타난 바와 같이 성소를 정결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지성소에 이르시는 그리스도의 오심과, Daniel 7:13에 제시된 바와 같이 인자가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오는 것과, Malachi가 예언한 바와 같이 주께서 그의 성전에 이르시는 것은 모두 동일한 사건에 대한 묘사이다. 그리고 이것은 또한 Matthew 25의 열 처녀 비유에서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바, 신랑이 혼인 잔치에 이르는 것으로도 표상되어 있다." The Great Controversy, 426.

첫 번째 진노는 1798년에 끝났고, 마지막 진노의 끝은 1844년이였다. 그리스도께서 밀러주의자들의 성전을 일으키신 그 46년 기간의 시작은 그 결말을 예시했으니, 시작과 끝 모두가 그분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종결됨으로써 표시되었기 때문이다. 이는 예수님이 언제나 어떤 것의 끝을 그 시작과 연결하여 규정하신다는 사실 때문이다.

다음 글에서 가브리엘이 다니엘에게 준 가르침에 대한 우리의 연구를 계속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사람들에게 열려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봉인된 책이라고 배워왔지만, 그것은 진리와 빛을 거부하는 자들에게만 봉인되어 있다. 그 안에 담긴 진리는 사람들이 곧 일어날 사건들을 준비할 기회를 갖도록 선포되어야 한다. 멸망해가는 세상의 구원을 위한 유일한 희망으로 셋째 천사의 기별이 제시되어야 한다.

"말세의 위험이 우리에게 닥쳐왔고, 우리의 사역에서 우리는 사람들에게 자신들이 처한 위험을 경고해야 한다. 예언이 머지않아 일어날 것이라고 밝힌 엄숙한 장면들을 다루지 않은 채로 내버려 두지 말라. 우리는 하나님의 사자들이며, 지체할 시간이 없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동역자가 되려는 자들은 이 책에 담긴 진리들에 깊은 관심을 보일 것이다. 그들은 글과 말로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 오셔서 계시하려 하신 놀라운 것들을 분명히 하려고 힘쓸 것이다." 시대의 징조, 1906년 7월 4일.